

교사 2095명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 논란

전교조 “조례안 왜곡한 내용으로 교사들 서명 유도” 제주교총 “내용 왜곡하거나 강요·외압 전혀 없었다”

학생이 청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사 2095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한 것과 관련, 왜곡된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21일 도내 초·중등교사 2095명이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반대 서명은 이를 뒤인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제출됐

며 실제 심사가 보류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심사 보류 입장을 밝힌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약 35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이유는 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문제는 제주교총이 반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왜곡·확대된 내용으

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명은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받았는데 ▷수업시간에 잡자는 학생 지도 불가 ▷학생들의 교사·부모 고발하는 권리 ▷학생인권보호관(교육감 임명) 조사권·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문신·피어싱·염색·화장 등 지도 불가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교권침해·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총에서 제출한 반대 서명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왜곡·확대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효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도 “제주교총의 각 학교 분회장이 대부분 교장 혹은 교감으로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안 팩트체크 자료를 제작해 교사들에게 전파했으며, 향후에는 관련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교총에서는 서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반대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외압은 없었다”며 “공문 내용도 왜곡·확대된 것이 아닌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당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시민단체 “도의회 비겁해”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한 교육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켰다”며 “더욱이 학생 당사자의 강력한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입법 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제주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한중도 안되는 적폐 의원을 때문에 제주도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녹색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 자발적 학생인권조례 청원을 무시한 제주 교육위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좌남수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금악오름 비경에 취한 관광객 24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 비경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제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제주보건소는 A(49)씨가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아 해산물 섭취 이력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만성 간질 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진다. 증상은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설사, 피사성 피부병변 등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매년 40~50여명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1월 경기도 거주 80대 여성환자가 처음 발생 후 현재까지 45명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8~9월에 집중 발생해 추석 연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명씩 발생했고, 2018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59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 5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9번째 확진자 A씨는 제주 49번째 확진자(9월 9일 확진판정)의 가족으로,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8월 49번째 확진자와 함께 미국에서 입국했다.

같은날 오후 1시10분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235편을 이용해 오후 2시30분쯤 입도한 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태윤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5일 금요일 음 8월 9일 (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10%	고산	1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흐림	20/24℃
모레	맑음	19/23℃

구름 많음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 낮 최고 기온은 24~25℃의 분포를 보이겠다. 산간지역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24	달뜨기 14:40
해질미 18:27	달짐 1:--
물때	간조 00:02
	19:23
	11:3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높음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서귀포지역 공기 깨끗해졌다

올들어 미세먼지 11%·초미세먼지 14% 감소

서귀포지역의 공기가 깨끗해졌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서귀포지역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30.84µg/m³,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31µg/m³로, 전년에 비해 미세먼지는 11%, 초미세먼지는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 기준 평균농도는 올해 8월까지 대형·남원·성산읍 및 동흥동 등 서귀포지역 측정소 4곳에서 측정된 측정데이터의 평균 값이다. 동흥동에서 측정된 올해 8월까지의 대기환경 분석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가 ' 좋음'을 보인 날은 141일(61%), '보통'인 날은 83일(35%), '나쁨'인 날은 8일(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 좋음'을 보인 날은 15일 증가한 반면 '나쁨'을 보인 날은 3일 감소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방치시설 교체 설치 지원 17곳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사업 15곳 ▷도로청소차량 12대 신규 구입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과 함께 2865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지원했다. 이들

노후 경유차는 지난 2005년 이전 생산·출고된 차량이다. 현재 서귀포지역에 등록된 총 10만5000여대의 차량 가운데 경유차는 5만15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 최고의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경 위판액 일천억원 달성 축

저희 조합을 이용해주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한림수협이 되겠습니다.
- 한림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 일동 -

총사업비 170억원
국비 68억원(40%) 지방비 68억원(40%) 자담 34억원(20%)
준공예정일 2021년 7월

1층 마트(234평) 활어워터장(76평) 수산시장(135평) 수협은행(105평)
2층 식당(136평) 물리치료실(46평)
3층 대면화장(187평) 목욕탕(279평) 체력단련장(67평)

문화! 복지! 교육! 지역민과 함께 융성하세!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시준
신용상임이사 함재홍
경제상임이사 이치형
이사 고춘희 이명자 강제철 고경윤
좌석부 이인복 김일택 김보생
감사 임보국 이경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www.hallimsuhup.co.kr (064)795-0522~5